

주요 내용

■ 경기 회복기의 설비투자 동향과 시사점 ■

경기 회복기 설비투자 동향의 특징

- (시기별 특징) 80년대 중반까지는 회복기 진입 1년 후부터 설비투자가 증가했으나, 90년대에는 회복기 진입과 동시에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부문별 특징) 경기 회복기에는 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 비중이 비제조업 부문에 비해 높아지며, 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내용상 특징) 설비투자의 내용에 있어 연구개발이나 합리화 투자보다는 설비능력 증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짐

IMF 이후 경기 회복기 제조업의 설비투자 동향

- (설비투자 동향) 소비 증가, 생산 확대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설비투자는 저조함
- (투자 성격의 변화) 규모는 축소된 반면, 투자 성격에 있어서 설비능력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합리화, 연구개발 등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익성 위주의 경영 방식이 점차 확산되어 감을 반영함

시사점

- (설비투자 확대) 수출 확대, 내수 진작 등을 통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 확대가 시급함
- (연구개발 투자 비중 확대) IMF 이후 거의 모든 부문이 개방화되어 선진 기업과 직접 경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설비능력 증대에 못지않게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전략이 필요함(98년 전세계 30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97년에 비해 11.9% 증가한 2,540억 달러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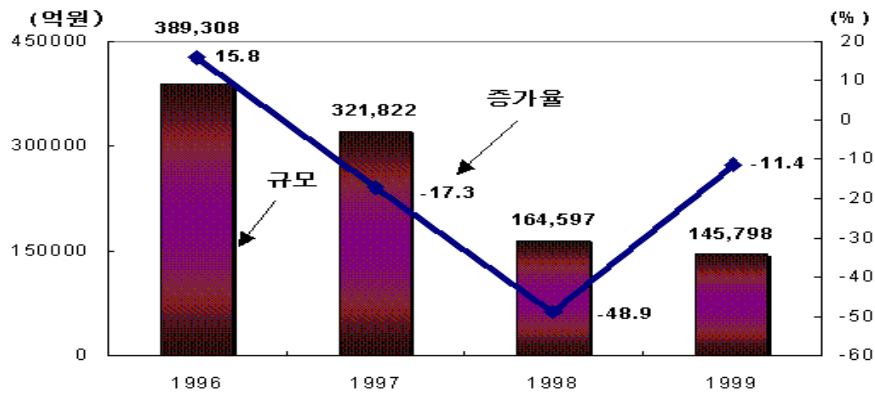
경기 회복기의 설비투자 동향과 시사점

신 광 철

IMF 전후 제조업 부문 설비투자 동향

- 산업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IMF 이후 설비투자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올해 그 감소 폭은 축소되기 시작함
- IMF 이전인 1996년에는 전년에 비해 15.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1997년에는 -17.3%의 감소를 보임
- 이후 1998년에는 50%에 가까운 대폭 감소 현상을 보인 이후, 올해에 들어 소비 증가 등에 힘입어 그 감소 폭이 완화됨

< IMF 전후 투자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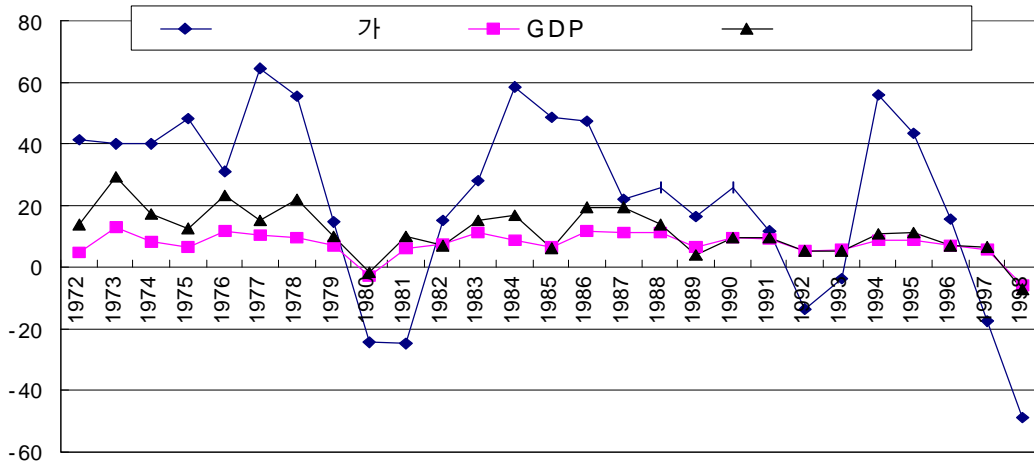
경기 회복기 설비투자 동향의 특징

- (설비투자 증가) 80년대 중반까지는 경기 침체 후 회복기에 들어서면, 약 1년 뒤 설비투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임
- 1975년에 경기 저점을 통과하면서 성장률은 197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함
- 반면 설비투자는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한 1976년까지 약간의 감소세를 보인 후, 1977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함
- 이러한 모습은 80년대에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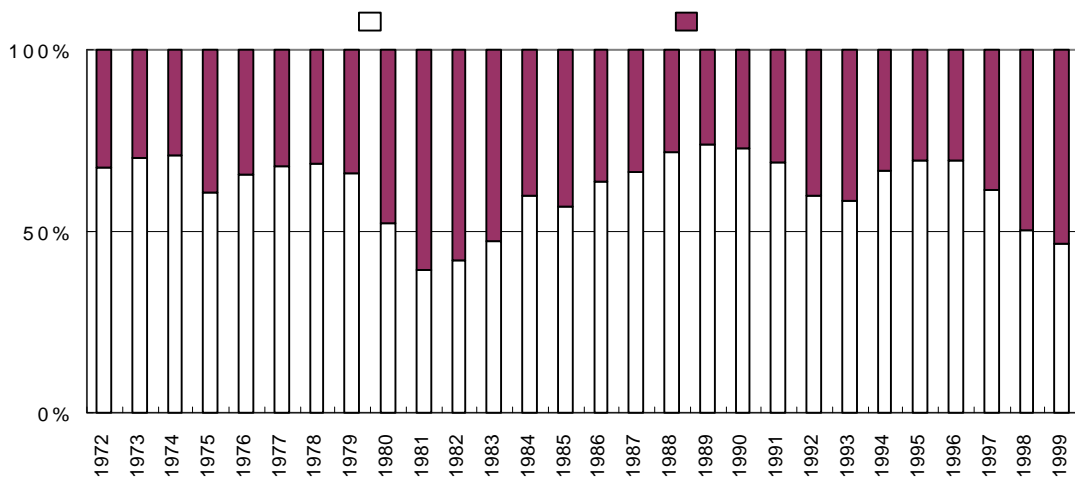
- (성장률과 투자의 동시 변화) 반면 90년대에 들어서는 성장률과 설비투자가 거의 동시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

- 1992년에 성장률이 저점을 통과하면서 설비투자 증가율도 동시에 플러스로 반전하기 시작함
- 이렇게 성장률과 설비투자 증가율 간의 시차가 없어지는 것은 정보의 흐름이 원활해짐에 따라 기업들이 경기에 앞서서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등 미래예측력이 높아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경제성장률과 설비투자 증가율 추이 >



< 제조업과 비제조업 투자 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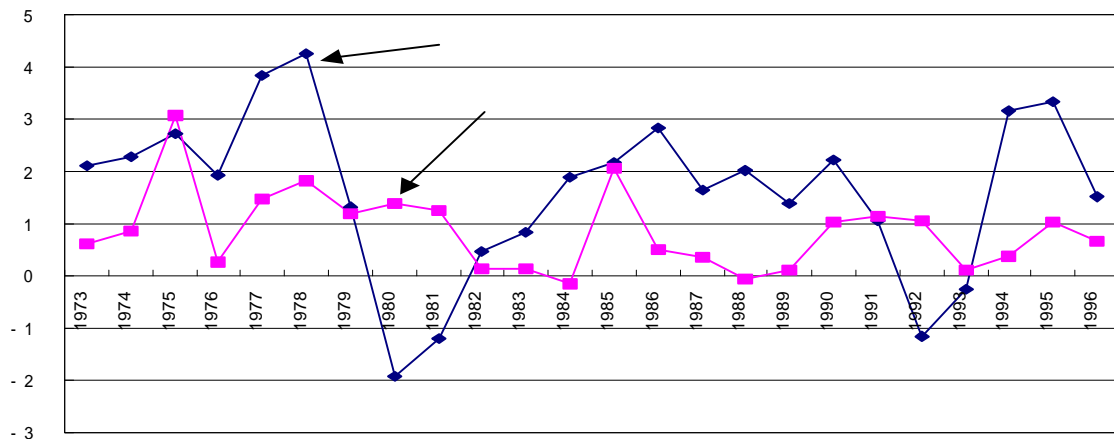
- (부문별 투자 내용) 설비투자를 부문별로 보면, 경기 회복기에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 저점에서는 비제조업의 설비투자 비중이 높은 반면, 회복기에 들어서면 제조업 부분의 설비투자 비중이 높아짐
- 이는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함
- 또한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제조업의 설비투자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함

- (성장 기여도) 경기 회복기에 성장에 미치는 설비투자의 영향을 보면, 제조업 설비투자가 비제조업부분 보다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큼

- 경기 저점에서는 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있어서 비제조업 부분 설비투자가 큰 반면, 회복기에 들어서면 제조업 부분의 설비투자의 기여도가 훨씬 크게 나타남

< 제조업 및 비제조업 설비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변화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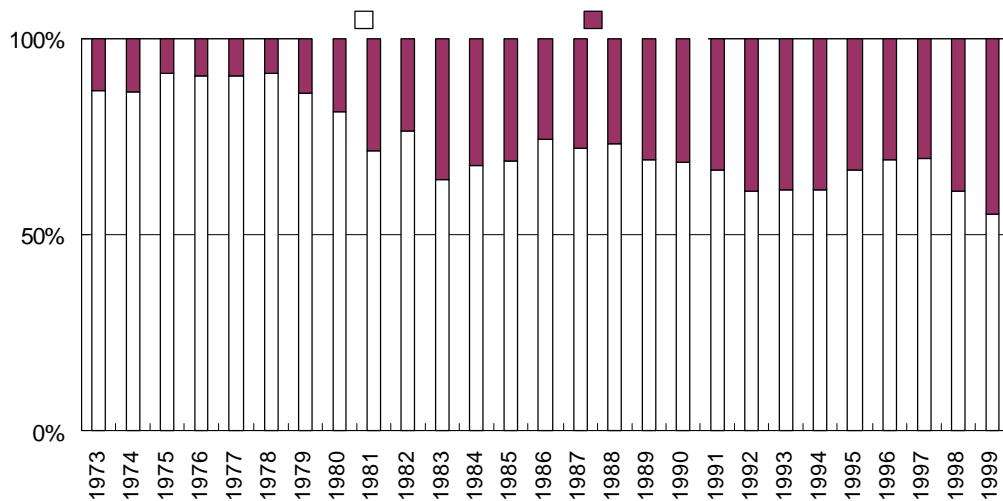
- (설비투자 내용) 설비투자의 내용면에서는 경기가 상승기에 접어들면 설비능력 증가에 대한 비중이 증가

- 80년대 초까지는 경기 회복기인 1976년, 1981년에 설비능력에 대한 투자 비중이 감소하고, 연구개발 등 기타 부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80년대 중반부터 경기 회복기에는 설비능력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변화됨

- 전체적인 추이에서는 설비능력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연구개발, 합리화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설비투자 내용의 변화 추이 >



시사점

-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제조업에 대한 설비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
 -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산업은 물론이고 정보통신 산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주력 부문은 아직까지 제조 부문이라고 생각됨
 - 수출 확대, 내수 진작 등을 위해 아직까지 주력 업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조업 부문의 설비투자 확대가 시급함
- 구조조정의 효과를 위해 연구개발, 환경 등 합리화 투자 확대도 시급함
 - 또한 IMF 이후 절대적인 규모면에서 위축된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해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함
 - 98년 전세계 300대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아시아 경제위기를 포함한 세계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97년에 비해 11.9% 증가한 2,540억 달러에 달함

(kcshin@hri.co.kr ☎ 724-4047)